

## 역량개념 지도 그리기\*

박 정 하\*

목 차	
I. 들어가는 말	IV. 'capabilities'로서의 역량
II. 'competency'로서의 역량	V. 맺는말
III. 'attribute'로서의 역량	

### 국문초록

상이한 맥락과 배경에서 나온 서로 다른 용어의 번역어로 '역량'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이란 번역어의 개념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역량 관련 담론에서 벌어지는 애매성과 혼란을 줄여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competency'의 번역어로 쓰이는 '역량'은 원래 과제에 대한 성공적 수행과 객관적 측정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며 '직무능력'으로도 번역되는 직업교육의 개념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OECD는 성공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핵심역량(key competences)으로 규정하려는 DeSeCo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역량에 대한 논의를 직업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교육으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직업교육의 개념을 학교교육, 특히 대학 교양교육에 적용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다음으로 '역량'으로 번역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attribute'로서 많은 나라에서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쓰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호주이다. 호주는 전공에 관계없

\* 이 글은 2021년 1월 22일(금)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대 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폭 수정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교수, pjhy80@skku.edu

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역량을 ‘일반적 자질(generic attributes)’로 규정하고 졸업생이면 누구나 이를 갖추도록 교육할 책무를 대학이 갖고 있음을 명시했다. 호주에서 이 개념은 직업교육의 맥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질이 다수 포함된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교육과정 차원에서 역량을 배양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에 이 역량을 반드시 다 반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역량’으로 번역하는 또 다른 용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능성과 능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capabilities’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제 성장 중심의 GDP 대신에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패러다임에 기초한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사회 발전의 기준으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관련된다. 이 접근법은 역량을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하면서, 삶의 질, 삶의 의미에 주목하며, 인간의 기본 품위와 사회 정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중요시한다. 나아가 개인의 내적 속성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 속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함께 문제 삼는다.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역량이란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호주와 같이 두 번째 의미로 넓게 규정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현실적 대안이다. 그럴 경우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도 역량이란 말 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제어] 대학교육, 핵심역량, 학습성과, 교양교육, 역량중심 교육과정

## I. 들어가는 말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핵심역량 제고’를 교양교육의 진단 요소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도 최근 이런 접근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고 밝힌 적이 있다.<sup>1)</sup> 첫째, 역량은 과제에 대한 성공적 수행과 객

---

1) 박정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2020 국제 교양교육 포럼 자료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0, 467~474쪽.

관적 측정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며 ‘직무능력’으로도 번역되는 직업교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목표로는 부적합하다. 둘째, 역량배양은 교양, 전공, 비교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데 교양교육만의 목표로 따로 설정한 것은 무리한 접근이다. 셋째, 교과목 수준에서 접근하여 교과목과 역량을 1:1로 매칭 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체가 역량 배양의 로드맵을 제시하는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교양교육 전문가가 교양교육 평가의 기획과 시행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역량’을 원래의 직업교육 맥락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곧 대학 졸업생이 직업인만이 아닌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능성이나 능력까지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여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는 보조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역량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자는 이 대안은 자의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이한 맥락과 배경에서 나온 서로 다른 용어의 번역어로 ‘역량’이란 말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 글은 그 간략한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다른 배경의 개념들이 한국에서 ‘역량’이란 말로 번역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함으로써 ‘역량’이란 번역어의 개념 지도를 그려보려는 것이다. 이 지도를 통해 역량과 관련된 담론에서 벌어지는 애매성과 혼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우리의 논의가 더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competency’로서의 역량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역량’이란 말의 대다수는 ‘competency’에 대한

(<http://www.konige.kr/files/sub0101/thekyowoo202012040948120.pdf>)

변역어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직무성이나 삶에서의 성공 여부는 지능이나 적성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간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인 역량을 그 대안으로 보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McClelland가 이런 접근을 주도하였다. 이때부터도 역량은 업무성으로 이어지는 수행능력과 관련된 개념이었다. 그래서 McClelland 이후 역량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교육과 인사관리 분야에 적극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역량 개념은 업무 수행능력의 특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한다. 1980년대 초에 Boyatzis는 역량을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후로도 이 개념은 우수 수행자와 평균 수행자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계속 진화하면서 1990년대 초 L. Spencer와 S. Spencer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 역량의 구성 요소를 지식, 기술, 자기개념, 특질, 동기라고 규정하였다.<sup>2)</sup>

역량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자의 특성’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역량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때에는 크게 수행자 중심(사람 중심) 접근과 과제 중심(직무 중심)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성공적 수행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수행자의 특성과 행동 차원에서 역량을 도출하려고 하는 반면, 후자는 ‘수행해야 할 해당 과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과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직무별로 충족해야 할 기준이나 표준을 도출하고 수행자가 이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보려고 한다.<sup>3)</sup>

결국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량 개념은 ‘업무나

2) 오현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38-39쪽.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41쪽의 <표 1>을 참조할 것.

3) 윤정일 외,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30쪽.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점과 수행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21세기 들어 우리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competency’를 아예 ‘직무능력’이라 번역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도 역량을 기초(foundation 혹은 basic)역량, 직무(job)역량, 리더십(leadership)역량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기초역량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적절한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직무적성검사에서 평가되는 역량이다. 직무역량은 입사 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 수행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여 구성원의 직무배치, 경력개발 및 역량개발에 활용된다. 리더십 역량은 팀장 또는 임원 이상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리더십 진단 시스템을 통해 평가되어 임원 선발 및 리더십 교육에 활용된다.

직업 교육 영역에서 출발된 역량개념이 학교교육에 도입된 데에는 OECD의 영향이 크다. 21세기 들어 OECD는 성공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핵심역량(key competences)으로 규정하려는 DeSeCo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역량에 대한 논의를 직업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공간적으로는 사회 전체 차원, 시간적으로는 전 생애 차원으로 확대시켰다.<sup>4)</sup> OECD의 핵심역량에 다양한 고려와 고민이 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핵심역량이 개인과 사회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 교육에서 가진 특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직업 교육에서 시작된 역량개념을 교육 영역에 확대한 OECD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예를 들어 한승희는 거시적으로는 ‘역량’은 결국 한 사회의 주류적 생산양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인간 능력

4)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OECD, 2005 참조.

의 선택적 표현에 다름이 아니며, OECD가 한편으로 역량 개념을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4학년과 8학년 대상의 TIMSS를 15세 대상의 PISA 및 성인 역량을 평가하는 PIAAC로 확장 전환시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자본 생산의 가치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sup>5)</sup>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핵심역량 정의에 포함된 ‘일반적 역량’이라는 규정도 직업 교육의 맥락을 떠난 내용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역량은 특정한 맥락이나 직무에서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되지만 특정 직무나 역량에만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역량이 있다는 생각은 초기의 McClelland부터 제기하였고, 뒤였고 Boyatzis에 의해 정식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이후 역량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바 있다.<sup>6)</sup> 주로 기초역량과 리더십역량에 이런 일반적 역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NCS에서도 의사소통능력 등 10개의 역량이 ‘직업기초능력’이란 이름으로 직종에 관계없는 일반적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직업교육 맥락의 역량개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 동안 대학들이 역량기반 교양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취업과 관련된 실용적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에 배치해왔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주장했듯이 첫째 의미의 역량은 교양교육의 목표가 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부분적이다. 예를 들어 교양교육의 본질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표준모델>은 1)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2) 비판적 사고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3)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4)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5) 공동체의식 및 시민정신 함양, 6)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1), 2), 4)는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역량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나는 교양교

5) 한승희, 「역량은 상품화된 인간능력이다」,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62~71쪽.

6) 오현석, 앞의 논문, 39쪽, 46~47쪽.

육의 목표를 핵심역량의 제고로 삼고 있는 것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 III. ‘attribute’로서의 역량

현재 ‘역량’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attribute’로서 ‘자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말이다. 이 말은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쓰고 있는 용어인데 대표적 사례가 바로 호주이다.<sup>7)</sup>

호주에서는 1992년 고등교육위원회(Higher Education Council)가 대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역량을 ‘일반적 자질(generic attributes)’로,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일반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졸업생이면 누구나 이를 갖추도록 교육할 책무를 대학이 갖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후 호주 교육부의 주도하에 전체 대학에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권고해 왔고, 시드니 대학교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후 2009년부터는 국가 졸업생 역량 프로젝트(National Graduate Attributes Project)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다수 대학이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역량을 각 대학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 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성과가 인정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7) 이하 호주에 대한 논의는 성균관대학교의 역량기반교육 연구팀의 일원으로 2011. 1. 25-30에 시드니대학교의 ITL(Institute for Teaching and Learning) 및 맥커리대학교의 LTC(Learning and Teaching Center)를 방문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과 그들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현재 논의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추후 보완이 필요하지만 2011년 기준의 내용으로도 이 글의 목적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다수 대학이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호주의 경우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대학에 따라서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일반 기술(generic skills), 핵심 자질(key attributes), 졸업 능력(graduate capabilities)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graduate attributes)의 목록을 보면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직업교육의 맥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질(예를 들면 학문적 수월성, 세계시민성, 윤리적·사회적 책임감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맥커리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주도한 Theresa Winchester-Seeto 교수는 호주 대학들의 핵심역량 모델에는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역량, 평생학습에 필요한 역량,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 등 네 항목이 이미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분석한 바로는 이 외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역량,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 등 세 항목이 더 추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대학의 '역량'이 직업 교육보다 훨씬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점은 구체적으로는 두 대학의 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시드니대학을 살펴보자. 시드니대학은 2004년에 졸업생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직업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자질 등을 '역량'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그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 이 틀에 따르면 학문적 수월성, 세계시민, 평생학습이 세 개의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① 연구와 조사(research and inquiry), ② 정보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③ 개인적·지적 자율성(personal and intellectual autonomy), ④ 윤리적·사회적·전문가적 이해(ethical, social, and professional understanding),



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다섯 개의 하위역량 요소를 추출하였다.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모델로 표현된다.



그리고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핵심역량	주요 내용
학문적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li> <li>- 지식에 대한 학구적인 자세를 갖추고, 지식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자신감 있게 지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li> <li>-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생산해내는 리더가 됨</li> </ul>
세계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를 대하는 자세를 갖추</li> <li>-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li> </ul>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를 갖추</li> <li>- 세상과 자신이 속한 장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계속적으로 학습에 전념하는 반성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함</li> </ul>

하위역량	구 성 내 용
연구와 조사	<p>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내리고, 분석할 수 있음</li> <li>•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찾거나 만들어 낼 수 있음</li> <li>• 비판적 판단이나 비판적 사고를 실행할 수 있음</li> <li>•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됨</li> <li>• 자신의 학문분야의 원리, 방법, 기준, 가치 및 범위에 정통</li> <li>• 기존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식</li> </ul> <p>강좌: &lt;논문 제출 준비 강좌&gt;, &lt;전략 읽기(Reading Strategies)&gt;, &lt;연구 아티클 비판적으로 읽기&gt;, &lt;문학 리뷰 읽기&gt;, &lt;비판적 읽기로의 초대&gt; 등</p>
정보문해력	<p>다양한 맥락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정보의 정도를 알 수 있음</li> <li>•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음</li> <li>• 정보와 그 출처를 평가할 수 있음</li> <li>• 지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과정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li> <li>•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음</li> <li>•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동시대의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음</li> </ul> <p>강좌: &lt;쓰기연습 및 요약&gt;, &lt;비판적 리뷰 쓰기&gt;, &lt;과제 질문 분석(Analysing the Assignment Question)&gt; 등</p>
개인적·지적 자율성	<p>개방적 태도,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고 주어진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며 지적인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음</li> <li>• 엄격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사고방식에 개방적임</li> <li>• 낯선 상황의 낯선 문제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학습하기 위한 과정과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음</li> <li>•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가지며 지속적인 반성, 자기평가, 자기개발에 헌신하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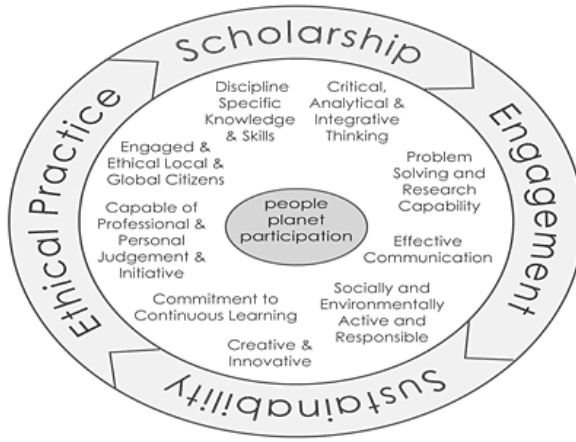
하위역량	구 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시각(vision)과 목표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함</li> </ul> <p>강좌 : &lt;대학원 교과과정 준비&gt;, &lt;대학원 연구 준비&gt;, &lt;지도교수와 의 연구(Working with your Supervisor)&gt; 등</p>
<p>윤리적 · 사회적 · 전문가적 이해</p>	<p>지역, 국가, 국제사회, 그리고 전문가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견실한 가치관과 신념을 고수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리, 정직, 진실성, 개방성, 공정성, 관용을 위해 애씀</li> <li>•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판단과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무를 인정함</li> <li>• 사회적, 문화적, 세계적, 환경적 책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li> <li>• 사회정의와 그 지속가능성에 헌신</li> <li>• 다양성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li> <li>•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li> <li>• 타인의 다양성 및 공통성을 소중하게 대하여 그들이 조직과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이끔</li> </ul> <p>강좌 : &lt;윤리적 · 사회적 · 전문적 이해&gt;, &lt;윤리학과 정치학&gt; 등</p>
<p>커뮤니케이션</p>	<p>새로운 이해를 구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학습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을 확장하기 위하여 언어적, 문자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li> <li>• 비평, 협상, 이해의 생산 및 소통을 위해 언어적, 문자적, 시각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li> <li>•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 위한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li> </ul> <p>이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강좌로는 &lt;말하기 기술&gt;, &lt;학술적 글쓰기&gt;, &lt;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효과적 문법&gt;, &lt;명료한 글쓰기&gt;, &lt;논문의 개요&gt;, &lt;글쓰기의 도입 및 결론 그리고 초록&gt;, &lt;문법 클리닉과 동료 교정활동&gt;, &lt;자료 정리를 위한 어휘 개발&gt;, &lt;논쟁 훈련&gt; 등</p>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위역량이 우리로 따지면 교양교육의 목표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육의 목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하위역량 요소

는 학문분야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부는 각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능력에 관해 자기 학문의 특성에 맞게 세부 진술을 개발하고 각 학과는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별 교과목이 학습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육과정과 개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그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관리한다.

다음으로 시드니대학보다 늦게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한 맥커리대학을 살펴보자. 2008년에 맥커리대학은 졸업생이 앞으로 맞이할 핵심 문제를 환경변화, 지구의 자원부족, 과학기술의 혁신, 윤리적 도전 등으로 보고,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여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졸업역량(Graduate Capabilities)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그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 이 학교는 먼저 학문적 수월성, 사회 참여, 지속가능성, 윤리적 실천이라는 네 항목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여기에 부합하게 역량을 설정하였다. 역량을 크게 인지적 역량, 대인간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의 세 역량군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9개의 하위역량을 배치시켰다. ① 전공지식 및 기술(discipline specific knowledge and skills), ② 비판적·분석적·통합적 사고(critical, analytical, and integrative thinking), ③ 문제해결 및 연구능력(problem solving and research capability), ④ 창의와 혁신(creative and innovative), 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effective communication), ⑥ 윤리적·참여적 시민의식(engaged and ethical local and global citizens), ⑦ 사회적·환경적 책임(socially and environmentally active and responsible), ⑧ 직업적·개인적 판단력 및 주도력(capable of professional and personal judgment and initiative), ⑨ 평생학습에의 몰입(commitment to continuous learning)

이때 핵심가치와 역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모델로 표현된다.



그리고 하위역량의 역량군 별 분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군	하위역량	구 성 내 용
인지적 역량	전공지식 및 기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유능함과 자신감을 가질 만큼 폭 넓고 깊게 있는 지식, 학문적 이해 등의 지적인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음</li> <li>• 전공 분야에서의 직업적 기준을 충족시킴</li> <li>•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상황에 자신의 전공 관련 지식을 적용할 수 있음</li> <li>• 다학문적 문제해결과정에 자신의 전공지식으로 기여할 수 있음</li> </ul>
	비판적· 분석적· 통합적 사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가정, 제약조건, 한계점 등에 관해 비판할 수 있음</li> <li>•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음</li> <li>•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음</li> <li>•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음</li> <li>• 과학적 사고 및 정보기술에 대한 문해력이 있음</li> </ul>

역량군	하위역량	구 성 내 용
	문제해결 및 연구역량	<p>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li> <li>• 자기의 지식을 복잡한 업무 상황 또는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음</li> <li>•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음</li> </ul>
	창의와 혁신	<p>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임</li> <li>• 상상력을 갖고 있음</li> <li>•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li> <li>•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li> </ul>
대인간 사회적 역량	효과적 커뮤니케 이션	<p>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음</li> <li>• 효과적으로 읽고 듣고 질문할 수 있음</li> <li>• 명확하게 말하고 글 쓸 수 있음</li> <li>• 시청각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윤리적· 참여적· 시민의식	<p>호주 시민으로서 역사 인식을 갖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감수성을 보일 수 있음</li> <li>• 타문화 및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개방적 자세를 취함</li> <li>•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정의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음</li> <li>• 보다 현명하고 나은 사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li> </ul>
	사회적· 환경적 책임	<p>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해 잘 인식하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타인과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음</li> <li>• 타인 및 다른 나라 국민들과 관계의식을 가짐</li> <li>• 타인 및 다른 나라 국민들과 상호 의무감을 가짐</li> <li>•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li> </ul>

역량군	하위역량	구 성 내 용
개인적 역량	직업적· 개인적 판단력 및 주도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및 개인 영역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li> <li>•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음</li> <li>• 애매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력이 있음</li> <li>• 다양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음</li> </ul>
	평생학습 에의 몰입	지적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갖고 자기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에 나아간 후 자신의 경력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함</li> <li>• 자신의 세상 경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꾸준히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음</li> <li>•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함</li> </ul>

매커리대학도 역시 9개 졸업역량 중에서 각 학과의 학문 영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각 학과가 자신의 학문 성격에 부합하는 언어로 변환하여 해당 역량의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개별 교과목의 과목해설에 그 과목과 관련된 졸업역량이 무엇인지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교수들은 해당 교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교육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결과 만일 특정 역량이 학위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에게 그 역량과 관련된 타 학과 또는 학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두 대학의 사례에서 호주의 ‘역량’개념은 직업 교육의 맥락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임이 확인되었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호주 대학의 경우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수에게 자신이 맡은 모든 교과목에 졸업역량을 반드시 다 반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교과목 중 일부에 졸업역량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역량을 반영한다고 해도 담당 교과목에서 그 대

학이 설정한 모든 역량을 다 다룰 필요도 없다. 대학에서 설정한 역량은 각 학과 또는 학부의 학위과정 별로, 즉 교과과정 차원에서 역량 맵핑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목 차원에서는 해당되는 역량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단 각 학과 또는 학부 단위에서 학위과정 별로 역량을 맵핑할 때 대학의 전체 역량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은 모든 과목은 아닐지라도 역량과 자연스럽게 맵핑 가능한 교과목에서는 해당 역량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교수법이나 과제, 강의 등을 통해 해당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하면 된다.

#### IV. ‘capabilities’로서의 역량

‘역량’이라 번역되는 또 다른 용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능성과 능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capabilities’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기초하는 GDP 대신에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패러다임에 기초한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사회 발전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HDI는 경제학자 Sen이 Mahbub ul Haq 등과 함께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달리 말해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UN에서 개발한 지표이다. 발전지표에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다면 단순히 소득에 맞추는 경우에 비해 국가 순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HDI는 실제로 보여 주었다.<sup>8)</sup> 철학자 Nussbaum도 경제성장 대신 생명, 건강, 신체 완전성 및 정치적 자유, 정치 참여, 교육 등의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개인이 지

8) 조지프 스타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GDP는 틀렸다』, 박형준 역, 동녘, 2011, 37~38쪽.



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회 발전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에 동조하는 대표적 이론가이다.<sup>9)</sup>

이 입장에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지만 국민은 인간 존엄성에 걸 맞는 삶을 원하며, 달리 표현하면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불평등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성장이 의미있는 삶을 실제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삶의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기본 품위와 사회 정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 기회는 무엇인가?”<sup>10)</sup>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역량’이다.

이때 역량은 일차적으로 여러 활동과 처지 및 이런저런 생활여건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sup>11)</sup> Nussbaum에 대한 언급에서 이미 나왔듯이 여기에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능력과 같은 복잡한 것까지 포함된다. 달리 표현하면 역량은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목표로 삼은 것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사회 속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Sen은 역량을 실질적 자유이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sup>12)</sup> Nussbaum도 역량을 말할 때 보통 복수형으로 써서 ‘capabilities’로 쓰는데 이는 인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sup>13)</sup> 이들은 다양한 역량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보완적 성

9) 마사 누스바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우석영 역, 궁리, 2016, 55~56쪽.

10)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2015, 8쪽.

11) 조지프 스타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앞의 책, 122~123쪽.

12)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35쪽.

13)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33쪽.

격을 강조하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리적 원칙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역량’ 개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내적 속성이나 능력만이 아닌 객관적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주로 내적 자질이나 속성을 가리켰던 앞선 두 역량 개념과 다른 면이다. ‘capabilities’로서의 역량도 일차적으로는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내적 역량의 측면을 갖는다. 이때 내적 역량은 주로 훈련되고 계발된 특성과 능력으로서 특정한 기술(skill)도 포함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자신감 있는 태도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개인이 교육과정을 통해 내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이 내적 역량이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못하면 이 역량은 실현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내적 역량으로 갖추었다고 해도 언론을 억압하는 독재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 내적 역량은 실질적 자유로 전환되지 못한다. 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역량은 발휘될 수 없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주민은 정치에 참여할 내적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모두 내적 역량의 확보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이다. 물론 거꾸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역량을 갖추기 못한 아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sup>14)</sup>

그래서 Nussbaum도 Sen과 유사하게 ‘역량’이란 한 사람의 고유한 내적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 능력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자유나 기회를 포괄하며, 달리 말하면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총합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결국 이 접근은 개인의 내적 속성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 속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함께 문제 삼는다는 점에

14)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37쪽.

15)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36쪽.

서 사회정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각 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실질적 자유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최저 수준 이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역량접근법’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본다. 선천적으로 중요한 내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결핍의 책임을 개인의 불운에 돌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그 결핍을 보완하여 그 개인이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 수준의 역량은 갖도록, 달리 말해 최저 수준의 기회는 누릴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투표를 예로 들면 인지 장애인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에는 대리인이 인지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에게 대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sup>16)</sup>

이러한 역량접근법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증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어떤 기능이 잘 발휘된 상태나 결과만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역량의 증진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을 결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정책과 건강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국익’을 내세워 전자를 택하기 보다는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후자의 접근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sup>17)</sup>

Nussbaum은 욕망 충족이 아니라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삼는 역량접근법이 추구하는 역량의 구체적인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으로 최저수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10대 핵심 역량을 제시한다. 이러한 10대 핵심 역량의 최저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내적 능력도 길러주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변화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10대 핵심역량의 목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6)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39쪽.

17)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41쪽.

18)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48~50쪽.

- 1) 생명 : 평균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 2) 신체 건강 :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영양과 주거).
- 3) 신체 완전성 : 신체를 보호하고 자기 몸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4) 감각, 상상, 사고 : 감각기관을 활용하고,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한다(literacy, numeracy, 미적 능력, 표현 능력 등).
- 5) 감정 : 주변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사랑, 분노, 갈망, 만족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6) 실천이성 : 선에 대한 관념을 갖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 7) 연계(affiliation) : 타인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8) 인간 이외의 종 : 동물, 식물 등 모든 자연적 존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9) 놀이 : 웃고 놀며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10) 환경통제 : 정치적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측정과 평가 문제이다. 역량은 어떤 의미에서건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의미 있는 목표로 작동하려면 현재까지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 세 번째 의미의 역량(들)이 목표로서 의미를 가질 만큼 측정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Nussbaum은 이에 대해 먼저 역량의 측정을 고려할 때 ‘측정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측정의 오류란 무언가가 측정하기 쉽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가장 적절하고 핵심적인 지표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다고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GDP 중심의 접근이 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특정 유형의 수치 척도를 적용하는 것만을 측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법원이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는지 심리할 때 수치 척도를 적

용해서 평가 대상을 일렬로 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어 질적 특성이 강한 측정도 우리에게 실제로 낫설지 않고 의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역량이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라 측정하기 쉽지는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HDI가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역량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측정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주장한다.<sup>19)</sup>

## V. 맺는 말

지금까지 그려본 역량 지도에 따를 때 세 역량은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을까? 편의상 논의 순서에 따라 역량 1, 2, 3이라고 하면, 먼저 역량 1은 역량 2에 포함될 수 있겠다. 역량 2에서 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규정할 때, 직업 세계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질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미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역량 2에서 역량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역량 3의 내용도 상당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역량 2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역량 3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내적 역량 이상의 실질적 자유까지 겨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적 자질 차원이 주된 논의 영역인 역량 2에 상당 정도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완벽히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교양 교육의 본연적 이념인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양교육은 자유인을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역량 3이 교양교육의 본연적 이상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다.

세 개념을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의 관심사는 아니다. 역량과 관련된 담론에서 생기는 애매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이 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단기적

19)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81~83쪽.

으로 역량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당장은 역량 2의 의미로 역량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특히 교양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우선 역량 2는 호주에서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양교육을 고민하는 우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맥락의 유사성은 역량개념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역량 2와 관련된 호주의 담론은 역량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대학에서 자주 범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바로 잡을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내용 중에서는 역량을 대학 생활 전체에 걸쳐 접근해야 할 목표로 삼고 있어서 각 학문 영역에서, 즉 전공에서 이를 적극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나아가 역량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배양되기 때문에 교과목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역지로 맞출 수는 없고, 일부 교과목은 역량과의 연계가 약하거나 심지어 역량과 무관할 수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배워야 할 것 같다. 그 외에도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대학이 역량을 설정하는 과정이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역량기반 교육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지하게 수행하려면 어떤 과정과 방식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량 개념을 역량 2처럼 중립적이고 넓게 정의하게 되면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도 역량이란 말 속에 담을 수 있게 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넓게 규정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본령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각 학문 영역의 기본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키고 종합할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역량이란 말을 넓게 이해하게 되면 이를 규정하기에 따라서 본연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교양교육 표준모델>이 제시한 목표

에 최대한 가깝게 역량을 규정하게 되면 역량교육과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기초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구체적 예로 Nussbaum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에서 인간개발 패러다임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인문교양과 예술 교육의 강조하면서, 비판적 사고, 세계시민적 소양, 공감적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능력을 교육 목표로 제시한다. 비판적 사고 배양을 위해서는 철학을 기초로 논쟁과 글쓰기 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이며 여기에 국제경제, 세계종교에 대한 이해, 지리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주장한다. 공감적 상상력 배양을 위해서는 문학과 예술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핵심 역량을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면 교육과정도 기초학문 중심의 과정으로 꾸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양교육을 핵심역량 제고와 연계시켜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고려할 경우에는, 역량 2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를 핵심역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이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역량 배양은 부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기본 역량진단에서도 교양교육이 핵심역량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역량을 일정 정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역량 교육의 기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대안이다. 핵심역량은 단순히 교과목의 내용 학습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과정과 교수법 및 과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교과목에서도 교육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교양교육에서도 바람직한 모델은 기초학문 교과목을 통해서 그 학문의 내용을 배우면서 수업 과정과 교수법, 과제 수행을 통해서 관련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기초사회과학 관련 교과목을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조직이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문학을 배우면서 의사소통능력이나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고, 철학을 배우면서 의사소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초학문 교과목을 통해서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모델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책은 목표가 중첩되어 밀도가 약해지는 위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2015.
- 마사 누스바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우석영 역, 궁리, 2016.
- 박정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2020 국제 교양교육 포럼 자료집』, 한국 교양기초교육원, 2020.
- 오현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 윤정일 외,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 조지프 스타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GDP는 틀렸다』, 박형준 역, 동녘, 2011.
- 한승희, 「역량은 상품화된 인간능력이다」, 『역량기반교육』, 교육과학사, 2010.
-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OECD, 2005.
- <http://www.konige.kr/files/sub0101/thekyowoo202012040948120.pdf>

## Abstract

## Drawing a Conceptual Map of Competency, Attribute, and Capabilities

Park, Junga(Sungkyunkwan University)

Currently, in Korean universities, three terms from different contexts and backgrounds, namely competency, attribute, and capabilities, are translated and used as the same word.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duce the ambiguity and confusion of discussions by drawing a conceptual map of these terms.

First, ‘competency’ is a concept of vocational education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perform tasks successfully and objectively measurable. In the 21st century, OECD carried out the DeSeCo project, which aims to define the abilities necessary to lead a successful life as “key competences”, and expanded the discussion of competence to school education, not limited to the profession. However, criticism is also high on the approach of applying the concept of vocational education to school education, especially university education.

Next, ‘attribute’ is used in relation to university education in many countries, and Australi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ustralia defines the qualities that must be acquired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regardless of major, as “generic attributes,” and stated that univers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all graduates to have them. In Australia, the concept is used in a broader sense that includes a number of qualities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contex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because they take a attribute building approach at the curriculum

level, they do not impose an obligation to reflect these attributes in every individual subject.

Finally, ‘capabilities’ is a concept used to refer to the possibilities and abilities to lead a human life. This concept relates to the argument that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social development instead of GDP driven by economic growth. This approach focuses on the quality and meaning of life, emphasizing the freedom to choose one’s own preferences, and places importance on the elements necessary to maintain basic human dignity and social justice. Furthermore, this approach does not focus solely on the individual’s inner abilities, but issues together the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abilities can be practically realized.

Regarding liberal arts education, it is an appropriate practical alternative to use it in the second sense as in Australia in order to use it as an auxiliary means to clarify the goals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at case, we will be able to put the original goal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term.

---

[Key Words] competency, key competences, generic attributes, attribute, capabilities,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접 수 일 : 2021년 02월 25일

심사완료 : 2021년 03월 08일

게재결정 : 2021년 03월 15일

